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40-1호)

# 여론속의 여輿論論

기획: 간병이 필요한 시대에 사는 우리

2023. 07. 26.

---

담당자 송한나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0993  
e-mail | hnsong@hrc.co.kr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 간병이 필요한 시대에 사는 우리

### 주요 결과

- 한국은 2025년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보니, 돌봄, 부양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대부분 노인에 초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수발 등의 신체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간병 돌봄은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간병이 필요할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5월 26일 ~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간병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 전체 응답자의 82%는 한국 사회에서 간병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해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대다수는 질병, 장애, 사고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95%)고 보지만, 실제로 경제적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응답은 27%뿐이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병과 관련된 민간보험(특약 포함)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은 29% 수준이었다.
- 가족 구성원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을 부양자 관점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병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피부양자 관점에서는 응답자 본인이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았다. 부양자 관점에서는 가족 등 보호자가 직접 간병하겠다는 응답(부모 간병 55%, 자녀 간병 75%)한 반면, 피부양자 관점에서는 전문 간병인이 간병해주기를 원하였다(55%).
- 가족의 간병 문제는 가정 내에서만 해결하기는 어렵다(82%)고 본다. 간병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잘 이뤄져 있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고, 개인의 간병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89%)고 답했다.
- 한국에도 근로자가 일을 병행하면서 가정 내에서 아픈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연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무급이 원칙이다. 이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실제로 한 번이라도 이 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뿐이었다. 현행 규정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74%)고 보며, 최대 사용 가능한 기간(연간 90일)에 대해서도 충분하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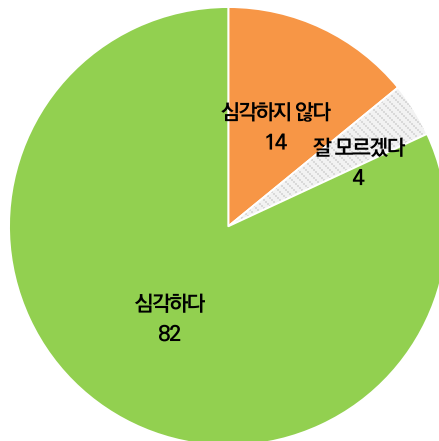
# 1 간병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 간병으로 인한 가정경제 및 사회문제, 심각하다는 의견 다수

힘든 간병 때문에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이 위협받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목격한다.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탓에 직장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비급여인 간병비를 견디다 못해 발생하는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란 비극적인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2%가 한국 사회에서 간병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해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단위: %)

### 간병 문제의 심각성, ‘심각하다, 82%’



질문: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간병과 관련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해체 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심각하다(매우+심각한 편), 심각하지 않다(전혀+심각하지 않은 편)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5. 26. ~ 5.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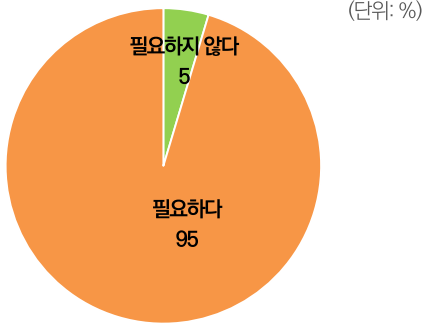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간병이 필요한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한다. 4명 중 1명(24%)이 현재 병을 앓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간병이나 수발 등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으며, 그 대상으로는 부모(52%), 배우자(17%), 응답자 본인(13%), (외)조부모(12%)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38%는 과거 혹은 현재 간병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간병 기간은 1년 미만(60%)이 가장 많았다.

## 간병을 대비한 경제적 준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준비 수준은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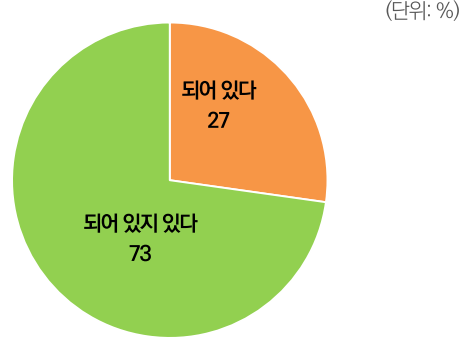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95%는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질병, 장애, 사고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간병이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대응할 준비는 되어 있을까?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경우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응답은 27%뿐이었다. 그나마 개인이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병과 관련된 민간보험(특약 포함)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은 29% 수준이다.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사전에 이를 대비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갑자기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대응이 힘든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간병에 대한 경제적 준비 필요성, ‘필요하다,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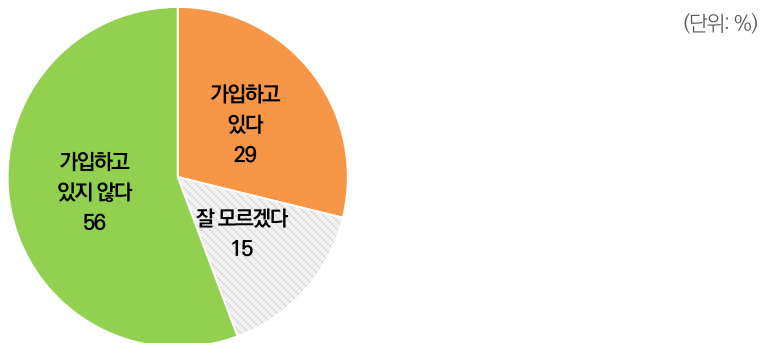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본인 혹은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질병, 장애, 사고 등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 필요하다(매우+필요한 편), 필요하지 않다(전혀+필요하지 않은 편)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5. 26. ~ 5. 30.

간병에 대한 경제적 준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27%’



질문: 귀하의 본인 혹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 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에게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질병, 장애, 사고 등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5. 26. ~ 5. 30.

민간 간병보험 ‘가입했다,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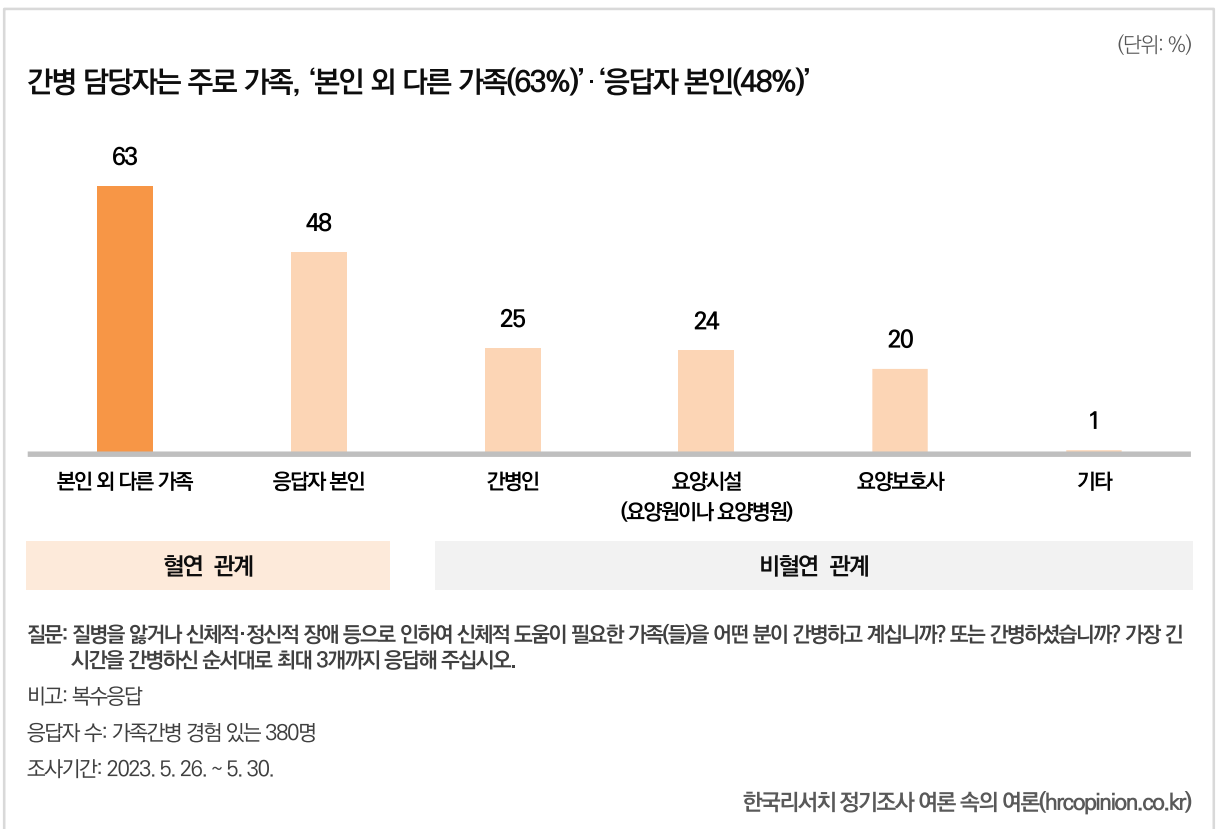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간병과 관련된 민간보험(특약 포함)을 가입하고 있으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5. 26. ~ 5. 30.

# 2

## 간병을 바라보는 시선 차이 : 부양자 vs 피부양자

### 가족이 아프면 보호자가 돌보겠지만, 내가 아프면 전문 간병인이 간병해 주길 바라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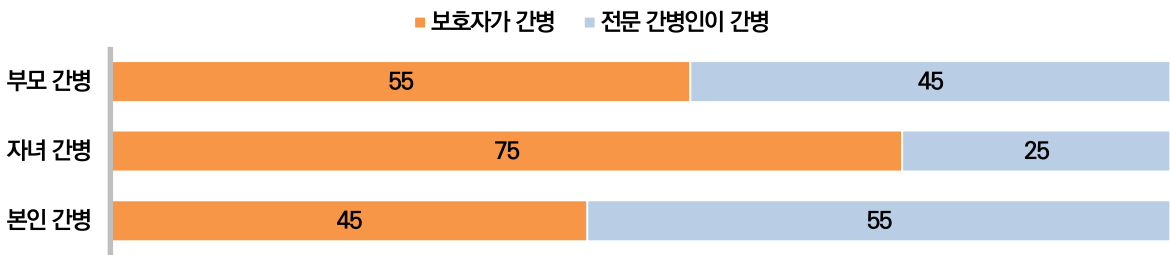
누군가를 간병하는 문제는 ‘누가 할 것인가?’가 언제나 핵심 이슈이다.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해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누가 주로 간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본인 외 다른 가족이 간병했다는 응답이 63%로 가장 많고, 응답자 본인(48%), 간병인(25%), 요양시설(24%)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혈연 관계인 사람이 간병했다는 응답이 제3자 혹은 기관이 간병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까? 부양자 관점에서 부모와 자녀 간병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피부양자 관점에서는 응답자 본인이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질문하였다. 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족 등 보호자가 직접 간병하겠다는 응답은 55%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하겠다는 응답(45%)보다 높았다. 같은 질문을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 물었을 때에도, 가족이 직접 자녀를 간병하겠다는 의견(75%)이 다수였다. 다만 응답자 본인이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달랐다. 내가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전문 간병인이 간병해주기를 원하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55%). 내 가족이 아플 때에는 보호자가 돌볼 것이지만, 내가 아플 때는 가족들에게 간병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단위: %)

**부모와 자녀의 간병은 보호자가, 하지만 내가 아플 때는 전문 간병인의 간병을 선호**



질문: 만약 000(이)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나 수발 등의 신체적 도움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귀하는 누가 간병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비고: 간병이 필요한 대상을 (1)부모, (2)자녀, (3)응답자 본인으로 제시하여 응답하도록 함.

보호자 간병 선호(전적으로 가족 등 보호자가 직접 간병해줬으면 한다 + 주로 가족 등 보호자가 간병하지만,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여 일부 간병해줬으면 한다), 전문 간병인 간병 선호(전적으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해줬으면 한다 + 주로 전문 간병인이 간병하지만, 가족 등 보호자가 일부 간병해줬으면 한다) 합한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부모간병 - 현재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는 사람 764명, 자녀간병 - 현재 자녀가 있는 사람 611명, 본인간병 - 1,000명

조사기간: 2023. 5. 26. ~ 5. 3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간병 담당의 성별 불균형 존재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가족이 아플 때 간병을 주로 책임지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 먼저 간병이 필요한 대상이 부모인 경우, 응답자 본인이 간병을 맡아 하겠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고, 요양보호사나 간병인(23%), 부모님의 배우자(16%) 순이다. 자녀가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응답자 본인(52%), 나의 배우자(26%), 요양보호사나 간병인(11%) 순이다. 응답자 본인이 아프게 되면 나의 배우자(38%), 요양보호사나 간병인(26%), 나의 어머니(22%)가 실제로 간병을 많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간병을 책임지는 사람의 성별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진다. 여성 중에서는 42%가 자신이 부모의 간병을 책임질 것이라고 답해, 남성의 응답(36%)보다 높았다. 간병이 필요한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여성 중에서는 73%가 자신이 자녀 간병을 책임지고, 배우자가 간병을 책임질 것이라는 응답은 5%에 그쳤다. 반면 남성 중에서는 27%만이 자신이 자녀 간병을 책임지고, 52%가 배우자가 간병을 책임질 것이라고 답했다. 본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올 경우에도 여성 중에서는 31%가 나의 배우자가 간병을 책임질 것이라고 본 반면, 남성 중 나의 배우자가 간병을 책임질 것이라는 응답은 45%로 더 높았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 가족 내 주된 간병 담당자는 누구? -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족의 간병 부담 더 크게 느껴

(단위: %)

부모 간병	구분	사례수 (명)	나(본인)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부모님의 배우자
	부모가 있는 응답자 전체	(764)	39	23	16
	남자	(388)	36	20	18
여자	(377)	<b>42</b>	25	14	

자녀 간병	구분	사례수 (명)	나(본인)	나의 배우자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자녀가 있는 응답자 전체	(611)	52	26	11
	남자	(275)	27	<b>52</b>	10
여자	(336)	<b>73</b>	5	11	

본인 간병	구분	사례수 (명)	나의 배우자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나의 어머니
	전체	(1,000)	38	26	22
	남자	(496)	<b>45</b>	23	22
여자	(504)	31	29	21	

질문: OOO(이)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나 수발 등의 신체적 도움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실제로 누가 가장 많이 간병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간병이 필요한 대상을 (1)부모, (2)자녀, (3)응답자 본인으로 제시하여 응답하도록 함, 상위 3순위 항목만 제시함.

응답자 수: 부모간병-부모 있는 764명, 자녀간병-자녀 있는 611명, 본인간병-전체 1,000명

조사시기: 2023. 5. 26. ~ 5. 30.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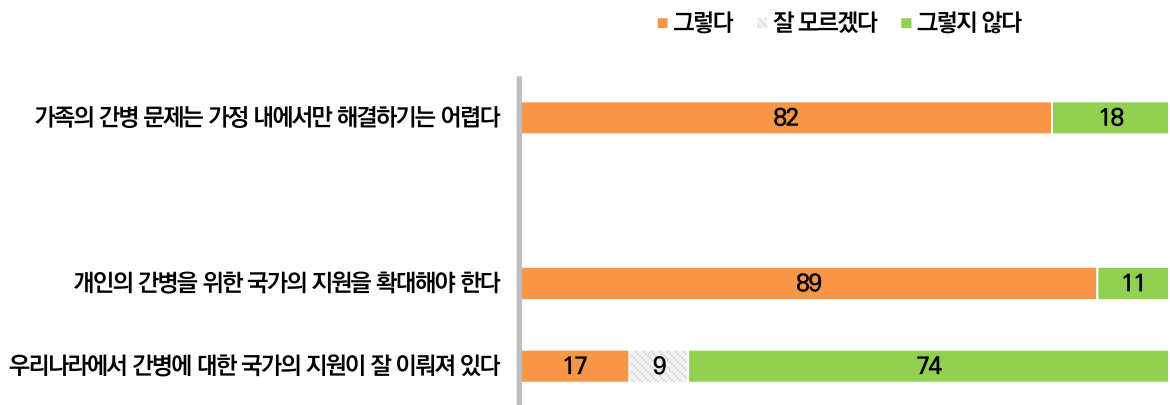
## 간병 문제 대처 방안

### 간병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재조명해야

우리는 앞으로 간병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람들은 가족의 간병 문제는 가정 내에서만 해결하기는 어렵다(82%)고 본다. 더불어 간병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잘 이뤄져 있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고, 개인의 간병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89%)고 답했다. 그간 간병 돌봄의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어 오던 문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개인 혹은 가족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가 간병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단위: %)

**가족간병은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82%**  
**국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해, 89%**



질문: 다음 문항들을 읽고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비고: 그렇다(매우+그런 편), 그렇지 않다(전혀+그렇지 않은 편) 응답 제시함.

'우리나라에서 간병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잘 이뤄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만 '잘 모르겠다' 보기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5. 26. ~ 5.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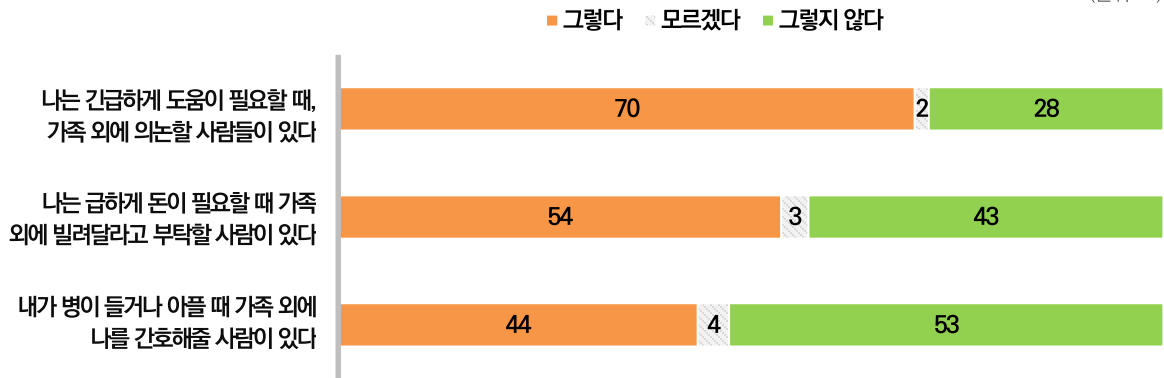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만약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내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물었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 외에 의논할 사람들이 있다’는 응답은 70%였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빌려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있거나, 병이 들거나 아플 때 나를 간호해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54%, 44%로 나타났다. ‘의논 → 경제적 지원 → 간호’로 갈수록 사회적 자본의 강도가 약해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득 수준별로 보면,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낮았다. 취약계층일수록 돌봐 줄 사람이 없으므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간병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혼자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는 간병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도 같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 사회적 연결망, 긴급한 상황에서 ‘의논 → 경제적 지원 → 간호’로 갈수록 사회적 자본의 강도가 약해져

(단위: %)



질문: 귀하는 다음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그렇다(매우+그런 편), 그렇지 않다(전혀+그렇지 않은 편) 응답 제시함. 사회적 연결망 확인 문항은 23년 7월에 조사한 결과임.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7. 7. ~ 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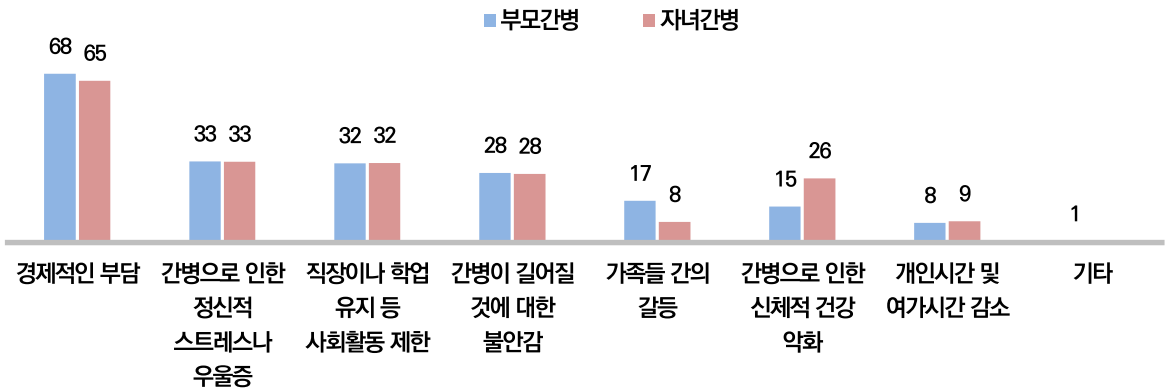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간병제도 마련이 필요해

부모와 자녀 등 가족에게 장애나 질병이 생기면 치료비나 간병비 등의 경제적 비용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낀다. 가족 간병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2순위 합산)으로 70%가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이어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전문 요양시설 확대(4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28%), 요양보호사 연계된 재가보호서비스 지원 확대(26%), 유급 간병휴직 제도(25%), 간병 가족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6%)이 그 뒤를 이었다.

(단위: %)

**간병 시 가장 걱정되는 점, 부모간병과 자녀간병 모두 '경제적 부담' 가장 커**



질문: 000이(가) 아파서 간병을 하게 된다면, 귀하가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비교: 간병이 필요한 대상을 (1)부모, (2)자녀로 제시하여 응답하도록 함,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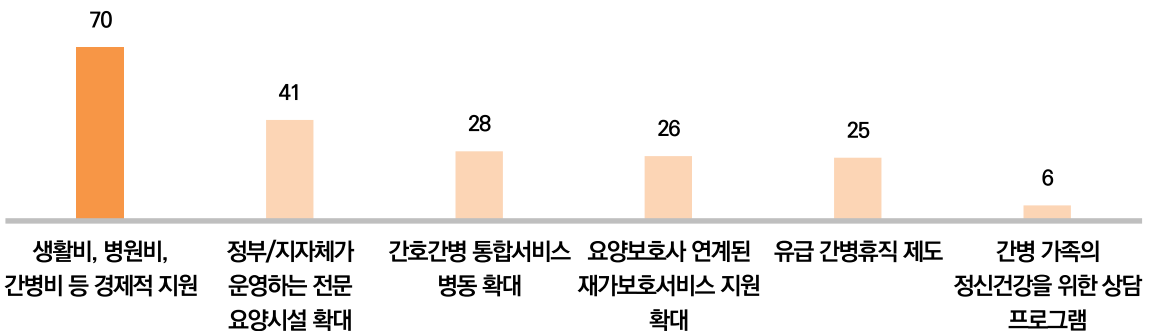
응답자 수: 부모간병 - 현재 부모님 중 한 분이이라도 생존해 있는 사람 764명, 자녀간병 - 자녀가 있는 사람 611명

조사기간: 2023. 5. 26. ~ 5. 3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단위: %)

**가족 간병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경제적 지원(70%)' 가장 필요해**



질문: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비교: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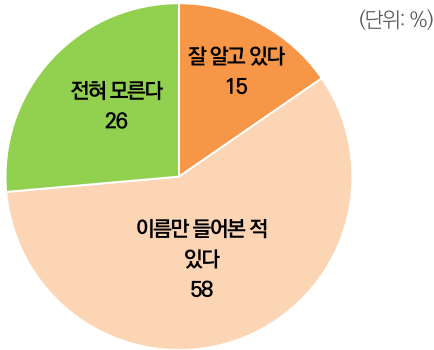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5. 26. ~ 5. 3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근로자가 일을 병행하면서 가정 내에서 아픈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일과 간병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한국에도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연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무급이 원칙이다.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는 58%,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26%이다. 이 중 실제로 한 번이라도 이 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뿐이었다.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 인지도, ‘잘 안다,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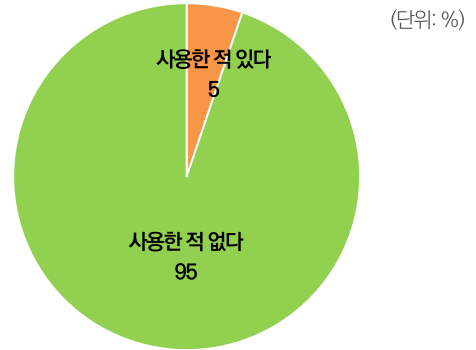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5. 26. ~ 5. 30.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 사용 경험, ‘있다, 5%’**



질문: 귀하는 한 번이라도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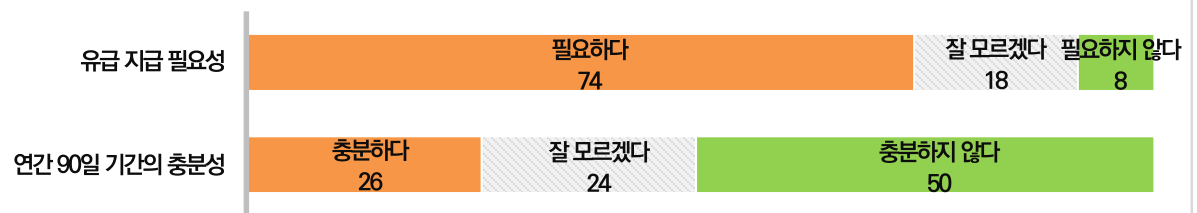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5. 26. ~ 5. 3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0명 중 7명 이상(74%)이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최대 사용 가능한 기간(연간 90일)에 대해서도 충분하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했다.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 규정, 유급 지급 필요하고(74%), 기간 충분하지 않아(50%)**



질문: 유급 지급 필요성 - 현재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는 급여를 지원하지 않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이 제도가 유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간 90일 기간 충분성 -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로 최대 사용 가능한 기간은 연간 9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이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05. 26 ~ 05. 3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간병 돌봄 문제는 이제 모든 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들리는 간병파산, 간병살인 등의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나라의 간병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제는 간병이나 돌봄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차원의 고민을 깊이 할 시점인 것 같다.

##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5월 기준 전국 88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10,311명, 조사참여 1,510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9.7%, 참여대비 66.2%)
조사일시	• 2023년 5월 26일 ~ 5월 30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 여輿論論

Hankook Research

